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 호
2026년



Photo 'Lonely Highway' by Okchu Lee

애리조나 사막 II

바다 그리워
바다에 가도
내 맘 안풀리더니

산에 올라
하늘 속에도
다 안풀리더니

온종일
사막을 달리느라
허공에 젖어

나도 망각하고
허공 뿐 일 때
나는 풀리었네

바다에 가도
산 하늘에도
다 안 풀리더니

〈황갑주 시집 사막기에서〉

차 례 (CONTENTS)

시 : 애리조나 사막 II	황갑주 : 1	칼럼 : BibleKim.com을 소개합니다 김기천 : 9
한인회 :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 2	칼럼 : 영적 무감각 나정용 : 10	
교계 소식 : [고] 정용치 목사 천국환송예배 : 3	수필 : 말하기 이정길 : 11	
국내외 뉴스 : 지난 1,2월 주요 뉴스	부고 : 이순자 권사 신수자 : 12	
한국 F-15K 성능 개량 위해 보잉과 계약 체결, 한국전쟁 영웅 윌리엄스, 명예훈장 수여 확정, 동계올림픽 개막, 슈퍼볼에서 시애틀 우승 : 4	수필 :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 추석근 : 13	
아시아 배드민턴 팀 선수권 대회 한국팀 우승, 트럼프 대통령, 일본 총리 선거 압승 축하, 대미 투자 위원회 프로젝트 검토 착수 : 5	수필 : 위풍당당 나정자 : 14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2026년 동계 올림픽 마침 : 6	성경 : 기독교윤리 (15) 산상수훈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 김민순 : 15	
지역소식 : 알버커키 시니어 목요일 모임, 알버커키 감리교회 3월13일 부흥회 개최 : 7	성지순례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3) 실루기아 항구: 문명과 복음의 교차로 김민순 : 17	
추모예배: 고 이덕재 목사님을 기리며 제임스박 : 7	대체신학 : 이스라엘과 대체신학 신경일 : 19	
추모예배:고 이덕재 선교사님 가족의 조문 강경우 : 8	영어이야기 : Monday is the first day... 이상목 : 20	
	수필 : "100m" 차학주 : 22	
	수필 : 뉴멕시코에서... 아비큐와 타오스 김장숙 : 23	
	광고 : 뉴멕시코 교회안내 : 25	
	광고 : 뉴멕시코 한인 업소 안내 : 26-28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제21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오년 새해를 맞은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월의 끝자락에 수선화와 히야신스가 활짝 피었기에 알버커키 특히 우리집 앞마당은 봄소식이 빠르구나 싶습니다.

지난 1월 2월 소식을 전합니다.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주 총연에서 하는 미주 한인의날 행사로 아틀란타 조지아에 다녀 왔습니다.

1월 13일에는 이정길교수님께서 참전 용사 미팅에 다녀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쇠하시는 참전 용사분들의 소식에 안타까움만 가득해 집니다. 그리고 노병들의 애국심과 한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고 느꼈기에 이런분들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고 느낍니다.

1월 25일 정관위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순삼회장님과 이명길 목사님께서 타주로 이사 가셔서 새로운 정관위원으로 문상귀 회장과 손말레 부이사장이 정관위원으로 수고해 주실것입니다. 앞으로 이정길 장세희 김진욱 문상귀 손말레씨가 정관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2월 15일 한인회 대청소로 이영혜 김진욱 부회장과 함께 회관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였습니다. 매주 청소하고 매달 대청소해도 치울것은 계속 나오는게 건물 관리입니다. 2월에 창고 정리 지붕 청소는 형재영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3월 10일에는 순회영사 업무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한인회 임원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아침부터 영사팀과 같이 회관에서 봉사자로 일할것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1일까지 미주 한인회장 대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있습니다. 대륙별 한인회장대회가 미국에서 먼저 열리는 만큼 3박 4일의행사는 미주 한인사회의 단합과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준비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 소식으로는 1월 24일 교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1월 30일 한국학교 봄학기가 개강하였습니다. 한국학교는 50여명의 성인반과 아동반이 한글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한글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 드립니다. 아동반은 현재 7명의 재학생으로 한글과 미술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반은 5명 이

가 되면 아동반 수업은 없어지고 성인반만 운영해 나갈것입니다. 한국학교 교장으로 행정업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중 한국학교 운영과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시고 관심이 있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임원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묵묵히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가 계시기에 운영해 나갈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와 봉사하신 임원진과 교민들께 누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교민들께서는 한인회에서 봉사하시는분들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셔야 비영리 단체로 잘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 한인회라는 단체가 있기에 영사업무를 이곳 알버커키에서 할수있고 교민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인회의 앞날을 위해 무엇으로 도움이 될수있나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교민이 많아지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미주 총연 31대 총회장 취임식후 신년인사

2026년 상반기
영사업무 안내

일시: 3월 10일 화요일
9:00am-1:00pm

장소: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상세한 정보는 한인회 홈페이지
WWW.KAANM.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소식

[고] 정용치 목사 천국환송예배 드림교회에서 엄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초대목사님 이셨고 ‘광야의 소리’를 창간 하셨던 고 정용치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지난 1월 16일(금) 오전 10시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열렸다. (부고 광야의 소리 1/2월호 참조)

최요셉 드림교회 담임목사의 집례로 열린 ‘고 정용치 목사님의 83년의 삶을 감사하는 예배’는 예배의 부름에 이어 고 정용치 목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를 부름으로 시작되었고 이상영 목사(예수동행교회)의 기도에 이어 보첼레스티 솔리스트 앙상블의 조가,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자’가 연주되었고, 이기용 목사(고인의 처남)와 김찬희 박사(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의 약력소개, 고인의 동기동창인 정소영 목사의 추모사가 있었다. 고인의 손자손녀의 추모사가 있었고 추모 영상, 고인의 동문인 김중언 목사(전 후러싱제일교회 목사)가 마태복음 25장 20-21절의 본문으로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인의 아들 정세광 권사가 인사말을 전했고 찬송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를 다 함께 부른 후 김영헌 목사(기감 전 서울연회 감독)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할리웃 포레스트론에서 최현규 목사(주님 교회)의 집례로 시작하여 김낙인 목사(연합감리교 은퇴목사)의 기도, 최현규 목사의 말씀, 김광진 목사(연합감리교 은퇴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에서 김찬희 박사는 “정용치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였고 또 위대한 목사였다.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고통속에서도 정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를 들



추모영상에서의 고 정용치 목사와 정혜숙 사모의 생일축하 모습[유튜브 캡처]



최요셉 목사



이상영 목사



이기용 목사



정소영 목사



김중언 목사



김영헌 목사



김찬희 박사



장남 정세광 권사

고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부르셨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가족 추모사에 나선 애쉴리 안, 자수아 정, 커티스 안, 정하준 등 손자, 손녀들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했던 고인의 삶을 추억하며 훌륭하신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여 이날 조객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다. (크리스찬 위클리 2026.1.18 기사참조) ■



손자손녀(Ashley Ahn, Joshua Chung, Curtis Ahn, Jadon Chung)의 추모사

고인의 약력소개 Obituary

- 1942년 5월 20일 일본에서 출생
- 1957년 진주 중학교 졸업
- 1960년 진주 고등학교 졸업
- 1960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
- 1967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 강화 동지방 동막교회 담임
- 1968년 이혜숙 사모와 결혼
- 1971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목사 안수, 이화교회 담임
- 1973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회원 허입, 인천 선린교회 담임
- 1974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구원 수료
- 1977년 서울 진관교회 담임
- 1979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입학
- 1981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졸업
- 1984년 서울연회에서 미주지역 선교동역자로 파송.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담임
- 1989년 Temple City 연합감리교회 한어부 담임
- 1992년 Glendale 연합감리교회 한어부 부담임
- 1993년 Glendale 한인연합감리교회로 독립 후 담임
- 1993년 Azusa Pacific 신학대학원 졸업 (M.Div).
- 1998년 Van Nuys 한인 연합감리교회 담임
- 2000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미 서부지역 동문회장
-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주지역 동문회 부회장,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원 이사
- 2003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수원장
- 2005년 Fuller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졸업(D. Min) 감리교 신학대학교 객원교수
- 2006년 한국 엠마오 공동체 영성 대표
- 201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연수원장 퇴임
- 2011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은퇴
- 2025년 12월 30일 만 8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심

국내외 뉴스

지난 1,2월 주요 뉴스

2월5일

<미 국방부, 한국 F-15K 성능 개량 위해 보잉과 28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미 전쟁부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성능 개량을 위해 방산업체 보잉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한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을 지원하기 위한



F-15K 전투기 개량 사업의 계약 업체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항공기 통합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입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28억 5,100만 달러 규모로,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5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이 우선 집행됐습니다.

또 전체 사업은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수행되며, 최종 완료 시점은 2037년 12월 31일입니다.

전쟁부는 이번 계약이 즉각적인 장비 양산이 아닌 설계와 개발 단계에 해당하며, 향후 시험과 검증 절차를 거쳐 후속 단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2026.2.6

<100세 한국전쟁 영웅 윌리엄스 퇴역 대령, 74년 만에 명예훈장 수여 확정>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서 전설적인 공

을 세웠던 한 미군 참전 용사가 올해 100세의 나이로 마침내 미국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럴 아이사 미 하원 의원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 해군 대령, 로이스 윌리엄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명예훈장인 수여 결정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여는 특히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된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윌리엄스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항이 포함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지난 1952년 11월 한국전쟁 당시, 해군 조종사로서 홀로 소련의 미그-15기 7대를 상대해 그중 4대를 격추하는 전설적인 공중전을 치른 주인공입니다.

당시 윌리엄스 대령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소련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함구령에 따라 이 전공은 50년 넘게 일급비밀로 봉인돼 왔습니다.

지난 2023년 해군 십자 훈장으로 격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 수여가 확정되면서 74년 만에 윌리엄스 대령의 영웅적 행동이 온전한 예우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성명에서 윌리엄스 대령은 “나의 친구이자 영원한 미국의 영



웅”이라며 “70여 년 전 윌리엄스 대령이 북태평양과 북한 해안 상공에서 보여준 35분간의 참혹했던 용기는 동료 조종사와 선원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대령의 이야기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2월 8일

<미국 프로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시애틀 우승>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팀인 시애틀 시호크가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29대 13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슈퍼볼은 매년 열리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텔레비전 행사 가운데 하나이고, 이번 경기의 미국 내 시청자 수는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중간에 펼쳐진 하프타임 쇼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Bad Bunny)가 자신의 대표곡들을 엮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공연은 배드 버니가 전곡이 스페인어로 된 앨범으로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을 수상한 최초의 아티스트가 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하프타임 쇼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연이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모욕이고, 성공과 창의성, 탁월성이라는 우리의 기준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2월 8일

<아시아 배드민턴 팀 선수권 대회 한국팀 우승>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최근 2026년 2월 8일, 중국 칭다오 콘손체육관 에서 열린 아시아 남녀 단체 배



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홈팀인 중국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 하여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을 필두로 백하나, 김혜정, 김가은 선수가 맹활약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2016년 아시아 배드민턴 대회가 창설된 이후 10년 만에 중국을 꺾고 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것 입니다.

2026.2.10

<트럼프 대통령, 일본 총리 선거 압승 축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높이 존경받고 매우 인기 있는 지도자라고 부르며, 총선을 실시한 다카이치 총리의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집권 자민당은 이제 입법부를 장악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의회 3분의 2, 초대형 과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와 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영광이었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적 의제를 통과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번 봄 백악관을 방문해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최신 집계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최소 316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차지해, 집권 연합은 최소 352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다수파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미일 동맹은 굳건하며, 양국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2026.2.14

<한국, 대미 투자 이행위원회 출범... 프로젝트 검토 착수>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 이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관세 합의 이행 동향 공유와 함께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 및 향후 추진 절차 등이 논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행위원회가 미국 측과의 투자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맡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 정부가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시 추진체계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한국 산업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장비 및 소재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 우선 원칙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미국에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 국회에서도 이번 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VOA뉴스, 광야의소리 전재허가: 18Mar20141230)

Hye Young Yoon
 Fluent in Korean & English
 Licensed Realtor

윤혜영
부동산 중개인

☎ Hye1231@gmail.com
 ☎ 917-862-1782

2026.2.24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저녁(미 동부 시간) 연방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번째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행했습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 연설을 한국어와 영어로 생중계하며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26 국정연설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8분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시간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하며 국내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및 관세: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인플레이션 하락(1.7%)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부흥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교 및 안보: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특히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건국 250주년: 다가오는 미국 독립 250주년(2026년 7월 4일)을 기념하며 국가적 단결과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이민 및 치안: 국경 보안 강화와 범죄율 감소, 펜타닐 유입 차단 성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2026년 동계 올림픽 마침

2026년 동계 올림픽은 2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와 이탈리아 북동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를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미국은 232명, 대한민국은 71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2

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로, 대한민국 대표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사진: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승리한 한국선수)



동계 올림픽 한국 메달리스트

메달	이름	종목	세부 종목	날짜
1 금메달	최가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2월 12일
1 금메달	최민정 심석희 김길리 노도희 이소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2월 18일
1 금메달	김길리	쇼트트랙	여자 1500m	2월 20일
2 은메달	황대현	쇼트트랙	남자 1500m	2월 14일
2 은메달	김성겸	스노보드	남자 광형대회전	2월 8일
2 은메달	최민정	쇼트트랙	여자 1500m	2월 20일
2 은메달	황대현 이정민 이준서 임종연 신동민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2월 20일
3 동메달	유승은	스노보드	여자 바이어	2월 9일
3 동메달	임종연	쇼트트랙	남자 1000m	2월 12일
3 동메달	김길리	쇼트트랙	여자 1000m	2월 16일

2026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순위	NOC	금	은	동	합계
1	노르웨이	18	12	11	41
2	미국	12	12	9	33
3	네덜란드	10	7	3	20
4	이탈리아*	10	6	14	30
5	독일	8	10	8	26
6	프랑스	8	9	6	23
7	스웨덴	8	6	4	18
8	스위스	6	9	8	23
9	오스트리아	5	8	5	18
10	일본	5	7	12	24
11	캐나다	5	7	9	21
12	중화인민공화국	5	4	6	15
13	대한민국	3	4	3	10
14	오스트레일리아	3	2	1	6

지역소식

알버커키 감리교회
3월13일 부흥회 개최

알버커키 감리교회에서는 2026년 봄철 부흥 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강사 목사님은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에서 감독으로 계신 조영진 목사님이시다. “이제 어디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3월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다음날 토요일 새벽 6시 모임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녁 7시30분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신다. 3월15일 주일은 오전 11시 대예배를 겸한 성회가 되며 말씀의 제목은 “조연도 좋습니다”이다.

알버커키 지역의 한인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의 잔치의 기쁨을 나눌수 있기를 본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은 기원하며 준비하고 있다.
(후면 표지의 포스터 참조)

알버커키 시니어
목요 점심 모임

매월 세째 주일 목요일 11시30분에 모이는 알버커키 시니어 모임인 Hope Group 은 지난 1월 22일에는 봉사자를 포함하여 33명이 모여서서 함께 점심 식사와 침교시간을 갖었다. 2월 19일 모임의 점심 메뉴는 소고기 무국, 동태전, 두부조림, 말린 호박복음, 멸치고추조림, 청포묵, 가지무침, 수정과 등등 이였다. 26명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뉴멕시코에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환영하는 모임인 Hope Group에 관한 문의는 전화 505-410-9653(최신옥 집사)으로 하면 된다. 3월 모임은 3월19일 목요일 11시 30분이다. 주소: 601 Tyler Road NE.

나바호의 별이 된 고(故) 이덕재 목사님을
기리며: 20년 선교의 여정과 감사의 인사 **제임스 박**

뉴멕시코주 쿠바(Cuba)에서 북동쪽으로 10마일,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수려한 산자락 아래 **’ 크리스천 비전 아카데미(Christian Vision Academy)**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 속에 고요한 적막이 흐르는 이곳은 지난 20년간 고(故) 이덕재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가 깊게 배어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54세의 나이에 여성 선교 목사로서 나바호 인디언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곳에 오셨던 목사님은, 고독한 기도와 신령한 찬양으로 척박한 땅을 일궈 오셨습니다. 그렇게 정든 선교지를 뒤로하고 잠시 방문하셨던 고국 한국에서 지난 12월 28일,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선교 동반자들과 지인들이 모여 지난 1월 23일, 알버커키 한미 감리교회에서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기릴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을 허락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알버커키 한미 감리교회 김기천 담임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고인의 삶을 더욱 은혜롭게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예배는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으로 시작하여 김의석 목사의 기도예 이어 고인의 목사 안수 받기 전 뉴욕 예일교회 사역 시절 담임이셨던 김정호 목사님이 참석하시어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오신 유가족(큰언니, 동생, 조카)들이 참석하여 조문객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배는 Milton Lee의 폐회 인사후 김기천 목사님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추모예배에 함께하신 멀리는 LA와 텍사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선교 헌금과 격려의 말씀은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희 ‘크리스천 비전 아카데미’는 고 이덕재 목사님의 선교 비전을 이어받아, 쿠바 인근의 나바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교육과 섬김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비전 아카데미, Secretary,
제임스 박 장로 배상

고인의 목회 약력

- * 뉴욕예일교회 청년/유년부(1996-1997)
- * 목사안수:뉴욕 스테튼아일랜드 성결교회
- * 뉴멕시코 나바호 미션 (2006-2025)



감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추모예배

지역소식

고 이덕재 선교사 추모 예배

가족의 조문

강경우

저는 이강수 장로의 외손자이자, 이덕재 선교사의 조카, 강경우입니다. 2025년 12월 말, 이모님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을 대표하여, 이모님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5월, 외할머니 김진숙 권사님의 첫 번째 기일을 맞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강수 장로님은 자손들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서 특송을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이나 출산, 취직 등 경사에 특송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장례 이후 기일에 특송하는 일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믿고 하늘 소망이 있는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외할아버지의 신앙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덕재 선교사님은 바로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이덕재 선교사님은 전도사로서 잘 지내던 1992년 가을, 40세가 넘는 나이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20대에 미국 유학을 경험했지만, 40대에 여자 혼자 뉴욕에서 유학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유학을 결정하셨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이모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모님은 1993년 5월 15일, 유학 두 번째 학기 중 어머니의 부고를 들으시고 급히 귀국하셨습니다. 장례

를 마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학업과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뉴욕 성결교회에서 사랑받는 사역자로 뿌리를 내리셨고, 덕분에 저와 제 동생도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모님은 또다시 파격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50대의 나이에 뉴멕시코 알버커키로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맨땅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센터에서 이모님은 돌 하나를 옮기고 꽃에 물을 주며, 주님과 진돗개 2마리와 함께 광야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되었고, 주님께서는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 둘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2000년대 중반 센터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수고와 헌신, 기도가 더해져 센터는 20여 년을 그곳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생전 이모님은 금식을 마치면 외할머니가 해주신 두부 요리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식사를 거의 못하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쯤 천국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두부 요리를 맛있게 드시며,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외할아버지 이강수 장로님도 2016년 4월, 미국 선교사로 있던 딸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으려 미국 출국 3일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먼저 배에서 내려야 한다.”



유가족(조카, 동생, 큰언니)

이덕재 선교사님은 평생을 안전해 보이는 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 미국 유학, 뉴멕시코 센터 사역, 모두가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파도 치는 물 위에서도 순적하게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께서 남기신 유지는 뉴멕시코의 센터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을 센터로 만들어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모님의 유지를 잇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슬픔이 잦아들지는 않겠지만, 할아버지께서 배우자의 장례 이후에도 슬퍼만 하지 않고 특송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저도 그 유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모님,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라고 대답하시던 그 음성을 기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도 제 삶의 현장을 센터로 만들어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덕재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칼럼

BibleKim.com을 소개합니다.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저요, 목사님을 잘 몰라요.” 몇 주 전 집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거의 15년 이상은 같이 교회생활을 했던 집사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적잖게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교인이 목사와 오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주로 목사는 예배 때만 보게 되니 목사는 강대상에서 보여 지는 모습으로만 각인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목사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같은 교회에 교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담임목사에 대해 잘 모를 것이다.

요즘 나의 일상을 보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먼저 pxagent에게 오늘의 새벽 설교를 700자 정도로 요약하도록 시킨다. pxagent는 Python 코딩으로 만든 ai agent로서 앞에 px는 내가 좋아하는 “프락시스”를 줄인 글자이다. 에이전트가 글을 만들어 놓으면 수정에 들어간다. ai라고 해서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다. 어떤 때는 잘하다가도 어떤 때는 중심을 못 잡고 해매는 문장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글을 읽으면서 수정을 하고 나면 오늘의 목상 말씀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교회 페이스북에다 오늘의 말씀을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영락없이 오늘의 목상 말씀이 페이스북에 뜬다.

그리고 나서는 7년 넘게 해왔던 성경작업에 들어간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번역도 하고 교정도 해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 글을 쓰는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또 읽고 있다. 그리고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심방과 교회 일들 주로 잡일들을 한다. 지난번에는 밀턴 형제가 교회 음향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모니터 앰프가 나갔다고 했다. 음향 전문가가 와

서 모처럼 교회 음향 조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동안 문제없던 Crown XLS 1002 앰프가 마침 고장 난 것이다. 파워스위치를 작동해 봐도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도 퓨즈가 나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집으로 앰프를 들고 와서 완전 분해를 해서 퓨즈를 찾았다. 그런데 퓨즈가 보이지 않았다. 워낙 고가의 앰프라서 거의 마이크로 칩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퓨즈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아마도 SMPS가 원인이라고 추정되었다. 다시 조립을 해서 전자제품 수리하는 데를 아마도 3 일 동안은 찾아다닌 것 같다. 악기점을 갔던 첫날에는 자기들은 수리는 안한다고 하면서 수리점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수리점을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을 연다고 적혀있는 날에 다시 찾아갔더니 주인이 수리하는 사람이 오늘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여하튼 모니터 앰프가 없어서 찬양팀이 애를 먹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InEar 시스템(TUGA RW2080)을 재사용하려고 교회 음향 배선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기기 역시 오래 전에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만 잘 사용해도 교회 강당에 그 많은 스피커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알고 보면 교회에는 소소한 일들이 참 많다. www.BibleKim.com은 내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홈페이지 주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다. 이유는 홈페이지 웹보드에 자꾸 이상한 광고들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지우는 것이 무척이나 성가셔서 그대로 방치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에 내 개인 일정 관리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Obsidian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무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데 매우 유용했다. 예를 들면 월

요일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주일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주일 예배 순서까지 마치고 프락시스 성경공부 원고도 끝낸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아침이 되면 그동안 수정된 파일을 주보 발간을 위해서 전송하고 주일 예배에 사용할 파워포인트 초안을 발송한다. 파워포인트 작업은 약 80장 이상 되는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인데 이 작업을 마우스로 클릭 한번하면 한 10초 만에 모든 기초 자료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Obsidian을 통하여 내 컴퓨터 안에 숨어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재정리하기 시작했다. 감사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내 컴퓨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Github에 데이터를 올리면 이 데이터를 Vercel 프로그램이 읽어서 웹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모두 무료이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Wordpress를 버리고 Obsidian - Github - Vercel이란 새로운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썼던 책들이나 글들이나 음악들이 올려 있다. 심지어 1992년에 손으로 썼던 원고들도 올려 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에는 인터넷 당당뉴스에 썼던 원고들이 기억나서 그 원고들을 모두 올려놓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을 모두 내 홈페이지에 올려놓려고 한다. 사실 나도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많이 잊고 살아왔다. 지금 나는 새롭게 홈페이지 BibleKim.com을 구축하면서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

칼럼

영적 무감각



나정웅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영적 무감각은 죄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깨달으면 회개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죄를 '깨닫기조차' 못 하여 회개의 문을 아예 닫아 버려 소망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며, 그 무감각은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전혀 불편하지도 않은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 이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 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매일 매순간 멸망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히3:13).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어 예배 자체가 형식적으로 전락해 버려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것이 영적 무감각의 절정 입니다.

그런고로 사탄의 사악한 전략은 먼저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달콤한 사탕(죄)을 제안하여 죄 범하기를 일상이 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시대에 뒤 떨어진 고전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불편하게' 느끼도록 치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백성들이 거둬지는 그 엄중한 경고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무시하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빠져 버렸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결국 나라는 BC 568 년에 완전

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 거기가 바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음껏 활보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는 유혹하고, 박해하고, 위장하고, 거짓으로 속여 심지어는 성도들간의 화목까지 빼앗아 가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파괴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마귀의 역사가 황황하여 오늘날 능력을 잃어가는 참으로 심각한 모습들을 쉽게 보곤 합니다.

30년 종교전쟁 이후 오늘날 유럽 교회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단순한 소수화를 넘어 신앙 정체성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제 교회는 사회, 문화, 삶의 중심에서 확연히 밀려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오랫동안 문화, 전통, 제도, 율법이 되어 버려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동성 있는 힘 과 Vitaliy 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 하심은 없이 교회의 외형적 성장만 남아 있어 절박한 삶의 고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은 세속화 되어 신앙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축소되었고,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약해 질 대로 약화되어, 진리는 불편하게 되었고, 죄

에 대한 가슴치는 회개와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절박감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호 통재라!

곧 사순절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부활 하심을 맞이 하도록 진지하게 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 하실 때 시끄러운 환호는 있었으나 회개는 없었고, 세사적인 기대는 있었으나 영적인 순종은 없었던 수많은 무리의 모습을 상기하며 그 중 하나였던 나를 반추하며 가슴치며 회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에는 기독교 신앙 전체의 중심사건을 굳게 믿고, 생명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아 부활의 삶을 매일 매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감격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합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입니다. 이 복음에 무엇을 더 하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됩니다 (갈1:6). 예수 그리스도 만으로 충분 합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보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세사적인 복, 위로, 격려, 표적 등을 더하는 순간 부터 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당황스러워 하던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 오늘날을 사는 교회와 '나'를 향한 경고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 페이지로 계속>

수필

말하기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삶이다. 혈연으로 맺어지는 가족에서 시작하여 자라는 동안 만나는 친구며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말이며, 마주 대하여 하는 이야기다. 어릴 때는 몸짓과 소리로 의사를 표시한다. 차차 말을 배우고 글을 익히면 자신의 의사를 말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더불어 누구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재주를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능숙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산다. 피아노를 잘 치고 각종 운동 경기를 즐기려고 교습을 받는다. 그런데 ‘말하기’는 어떤가? 의사를 잘 전달하려고 공식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 드문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나도 그 중의 하나로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말을 모방하면서 말을 익히다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전부다. 말하기를 그저 양육에 수반되는 것으로 여기는 관례를 따랐던 것이다.

하지만 대인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말을 잘 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면서 산다. 분명한 의사의 전달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니는 활력의 원천이다. 그와는 달리 잘못된 말은 대화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타인의 귀를 닫아 버리는 등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이끈다.

선각들은 오래 전에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 알

아듣기 쉬우면서도 그 뜻은 심원한 것이 그것이다. 곧 훌륭한 말이며, 군자의 말은 가까이에서 흔히 보는 일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다 (맹자 진심 하: 14.32) 고 했다. 말과 관련되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도 깨쳐 주었다. 동양의 고전 『논어』는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은 얼굴빛이나 꾸미는 자들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다 (학이: 3).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은 얼굴빛을 꾸미고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라 (공야장: 25) 고 했다. 남의 환심을 사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짓은 옛날부터 금기로 되어 왔다.

말하기는 음성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일이다. 생각, 느낌,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며, 대화나 발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단어 ‘말하다’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된다. 우리는 자주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다. 어떠한 사실을 알리려고 말을 한다. 그토록 말했건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면 말리거나 부탁했다는 뜻이다. 그의 행동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 평하거나 논하는 것이 된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하면 지적하거나 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부처가 미술의 극치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인류가 경험했던 예전의 사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도로 빨리 변화한다. 특히 정보와 기술의 변화는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

이 오늘날 사회의 특징이다. 이런 때일수록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마디의 재치 있는 말이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한다. 천냥 빛도 말로 갚는다는 속담도 있다. 새기고 있어야 할 가르침들이다.

보다 나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의사 전달 방법을 배우는 데에 시간을 들이면 자신감을 키워 주면서 표현 방법을 향상시키고, 주장을 더 잘 관철하게 해준다. 이성과 만날 약속, 급료를 올려 달라는 요구, 사람들 앞에서의 강연 등을 자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친구를 사귀거나 교제를 지속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등 삶의 모든 분야에 보탬이 된다. 정보의 교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해력을 증진시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만든다. 원활한 의사 소통에 필요하고,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데에 힘이 되며,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조장한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책을 많이 읽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며,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말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간결하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말한다. 이타적인 마음가짐으로 공손한 말씨를 쓰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 글을 쓸 때 중심 내용을 첫머리에 두듯 메시지의 핵심을 먼저 전

<12 페이지로 계속 >

말하기

<11 페이지에서 계속 >

달하는 두괄식(頭括式) 대화도 바람직하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재학당 면접 시험을 볼 때의 얘기가.

미국인 선교사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

“약 8백 리쯤 됩니다.”

선교사가 고개를 가웃대며 말한다.

“그래? 그럼 평양에서 공부하지 뭣하려 먼 서울까지 왔는가?”

도산이 선교사를 응시하며 반문했다.

“미국은 서울에서 몇 리입니까?”

“한 8만 리쯤 되지?”

그러자 도산이 또박또박 말했다.

“가르쳐 주러 8만 리 먼길도 오셨는데, 겨우 8백 리를 배우러 오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

영적 무감각

<10 페이지에서 계속 >

들에게 좋게하라 하나님께 좋게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1:10).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 하는 것 지양하고, 오히려 더 거룩해 지려 하고, 우리는 더욱 편해지려고 하기 보다 더욱 진실하려 하고, 세상에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 받는 교회되어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 나도록 준비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기쁨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영광스런 주님의 역사에 참여 합시다.

여호와와 영이 함께 하시어 이 검검한 영적 무감각 시대에 희망의 빛 될지어다. 아멘. ■

부고

로스 알라모스에 거주하시는 신수자 사모의 숙모가 되시는 이순자 권사께서 향년 102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천국환송예배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드리고 남편 고 이운호 장로 곁에 안장 되셨습니다.

고인은 지난 70년간의 생을 통하여 미네소타 한인사회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신경일 목사님과 신수자 사모께서 천국환송예배에 다녀오셨습니다.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커키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KIM'S 한국식품/식당
ORIENTAL MARKET
FOOD, GIFTS & MORE

Mon-Sat 10:00 am - 7:00 pm
Sun 11:00 am - 5:00 pm
(505) 296 - 8568
2306 Morris St. NE, Albuquerque, NM 87112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 NW
Ste G Albuquerque NM 87120
(505) 503 - 8699

Tue-Sat 11:30 AM - 8:00PM
Sun-Mon Closed

Popular Dishes: Spicy Chicken, Beef Bibimbap, Japche
Beef Bulgogj, Chicken Fried Rice, Tteokbokki ...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는 이들에게: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



추석근
산타페 한인 교회
담임목사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거대한 벽 앞에 서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모세라는 거목의 죽음이었고,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정든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이민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실’과 ‘막막함’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1. 세대는 저물어도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라는 문장으로 여호수아의 서막을 엽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선언입니다. 이민 1세대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도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baton을 넘겨주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히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이며, 그다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수아의 몫이라는 것ですよ. 내가 모든 것을 끝마쳐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두려움을 넘어서는 단 하나의 약속

위대한 스승 모세의 뒤를 잇게 된 여호수아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낯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리고 여전히 불평 섞인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야 하는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빈손으로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공항에 내렸던 우리네 첫걸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민 생활의 승패는 내 언어 실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믿음의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3.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의 중심, 말씀

하나님은 형통의 비결로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상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거센 풍파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다가도, 정체성의 혼란 앞에 멈춰 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성도를 인도하고, 성도는 그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척박한 이국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민의 길을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듯, 우리 인생의 계절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요단강 앞에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밭을 내디딜 때 비로소 강물은 멈추고 길은 열릴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늘 본향을 향해 함께 걷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필

위풍당당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지난 주말에는 엄청 큰 눈이 와서 쌓였습니다. 온통 세상 통행을 정지시키려 는듯 했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바깥 출입을 가늠하느라 서성이는데는 한나절 씩이나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며칠 간은 개나리라도 피울듯 화창하더니, 눈 녹인 소금물을 뒤집어 쓴 자동차들은 빠알간 신호등을 뚫어지도록 힘주어 쏘아보며 재촉합니다. 아마도 눈더미 못지않게 쌓인 일들이 많아서 그럴 겠지요. 헌데

오늘은 종일 선 잠 깬듯 뿌영더니 부슬부슬 가는 빗방울들입니다. 널뛰듯 하는 일기에 세월이 흐렸다 깨었다 합니다.

국민학교 세대인 우리는 학교공부도 공부였지만 학교에 결석한다는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학교결석이 우리 부모님들께는 원만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닌 우리 국민학교 세대는 토요일도 등교할뿐 아니라 결석없는 개근상은 아주 괜찮은 명예였으니까요.

요즘같은 snowy day no school? 뭐 이런거는 아예 그런 말조차 없었으니까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교를 쉰다? 통 꿈에도 없는 얘기였지요. 내가 다니던 공주사대 부속국민학교는 팡팡 얼어붙되 한번 꼭 다물고 출발한 입술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쫘 얼어붙은채로 가게 하는 살 찬 바람이 몰아쳐 내려오는 개천을 따라 걷는 십리 길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 눈길에 학교엘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게 상당한 표창감이다 싶습니다. 그 국민학교 6년 동안의 기억은 마

치 어떤 동화속 얘기 못지 않은데, 아 빨싸! 한편으론 한참 나태해진 지금의 내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도 합니다.

‘가만히 귀대어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은
봄이 온다네 봄이 와요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와요’

사시사철, 그런 엄동설한에도 칠부 바지에 검정 고무신 일색이셨던 권혁채 음악선생님! 지휘봉만 드셨다하면 위풍당당! 이 팡!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이미 봄은 오고 있다는 노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함축된 성경스런 노래에 우리 교실안은 후끈! 선생님의 지휘봉을 따라 동서남북 광활한 천지를 신바람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버들강아지 눈은 트고 있었다니까요. 국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위풍당당 기를 심어주시던 권선생님의 기개가 참으로, 참으로 그리운 시대인데.

지난 (2월 17일) 동북부 감리교 은퇴목사회 2월 월례회로 모였습니다. 많이 오시지 못하고 20여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까지 2시간 이나 걸리는 포킵시에서 부터 운전하고 오신 92세 되신 조영준 목사님께서선 혹이나 설교 시간에 늦을세라 9시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인근 대학강단에서 매주 화,목요일 강의를 맡고계신 조목사님께서선 이 월례회에 결석하지 않으시려고 말으신 강의 날짜를 변경해 놓고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의 파수꾼 인가?’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던 중, 지

금은 윤리도 상대적이 된 현실속에서 순수신학 보다는 교회행정학 같은 실 천신학이 더 급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하시며 리더십에 따라 생존형식이 사뭇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다 익히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는 리더가 파수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찍 혼자되신 어머니 밑에서 외동아들이셨던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고로 처음 교회에 입문하여 신학교까지 가셨답니다. 그때 감리교신학교 강의 첫시간에 강단에 서셨던 박대선 교수(후에 연세대 총장)께서 “제군들, 만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대통령만 못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짐싸서 퇴장하시오” 하셨던 그 말씀이 그의 90평생을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무론하고, Pride! Pride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취 각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프라이드! 복음을 전달 받은자의 프라이드가 희미하니 이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게 되고 그로해서 생겨지고 저지르는 실수들이 얼마나 아픈 세상을 만드는지! 분명한 프라이드만이 감추어지고 비틀어진 틈바구니 속에서 헛갈려 신음하는 작은 소리까지가 들려지게 한다고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 복음과
<16 페이지로 계속 >

기독교윤리 (15) 산상수훈 마 6:1-8, 16-18절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유대인의 경건

유대인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세계 1500만명의 인구가 0.2%의 그 적은 인수로 전체 노벨상 수상자 약 200명 약 30%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한국인은 5000만명의 인수로 노벨상 수상자 2명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9절 말씀인 쉘마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경건의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입니다.

2. 유대인의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첫째, 구제입니다. 신명기 15장 7-8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네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믿는 사람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경건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쉘마 이스라엘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면서 하루의 세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로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세번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를 금하는 바벨론 대왕의 명령에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하였더라”

셋째,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경건의 실천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속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키라” 유대달력 7월 10일은 일년에 딱 한번 대제사장이 성숙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일(욘 키푸르 Yom Kuper) 날입니다. 그날 모든 유대인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경건 세 가지 실천인 구제, 기도, 금식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삶인지요?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대대로 부모가 경건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경건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자녀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범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체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노력하고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 하는 삶이 아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탁월한 경건의 삶입니까?

3. 바리새인의 경건의 문제

이토록 중요한 경건의 세가지 실천 구제, 기도, 금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의 경건을 실천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12절 성전에 올라가 드린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경건의 실천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번씩 금식합니다. 바리새인은 소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건의 세가지 중요한 실천 구제를 위한 십일조, 금식, 기도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던 그 선한 구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가 되었습니다. 구제가 외식이 되었습니다. 외식은 연극에서 쓰는 가면입니다. 속 마음은 구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요 사람의 칭찬입니다. 그러니 구제를 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광고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제를 행합니다. ■

둘째, 하나님과 깊은 사귄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손을 거룩하게 들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외식이며 연극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골방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금식하는 경건의 실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식을 끊고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는 가장 신앙적인 경건의 실천도 외식 연극의 가면을 쓰고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에서 큰 장이 열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두 날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을 띠를 냅니다.

4. 우리의 경건

우리의 경건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유대인의 경건을 통해 배우며, 동시에 바리새인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우리 이웃을 섬기는 구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의 선한 구제의 삶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도움받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우리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골방기도 은밀히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 이 팬더믹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참된 회개와 금식의 경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

위풍당당

<14페이지에서 계속 >

함께 고난을 받으라...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지키라' 는 말씀으로 거듭 거듭 진력하여 이끄시는 데. 번뜩!

거의 백년전 쯤이나 되었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몰아 쳤던 골드러쉬 때, 우리 한반도에도 '금 땅 위에 살기에 더 슬픈 백성들이었다' 라고 전해지는 역설적 풍경과 마주칩니다. 마치 지금처럼 풍요로운 말씀의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 파수꾼들이 겸손히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묻는것 같았습니다.

다람쥐 여우들의 놀이터였던 산골이 노다지 누우런 황금이 난다는 소문으로 금새 발빠른 채광인들뿐 아니라 문인, 의사, 변호사, 기생, 난봉꾼 등 식자 무식자, 빈부 관계없이 통제없는 이들의 갈퀴에 오두막, 헛간 종류들의 집터들로 변하고 승냥이 이리등 들짐승들의 본거지는 그들의 도끼에 요술방망이 출현같은 집채가 되었다라는 애기가 어디 금광뿐이랴!

복음을 전 하는자, 복음을 전달받은 자는 무릇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발앞에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파수꾼으로 택함받고 명령받은 위풍당당 이거늘! 아름다운 것 즉 이 좌충우돌 철부지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유업을 지키는 위풍당당 이거늘! 할렐루야!
예배에는 여전히 활활 생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봄은 벌써 터졌던 것이었는지 눈더미 속에서 쭈근 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햇별이 찬란하다고! ■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3)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관문, 실루기아 항구: 문명과 복음의 교차로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로마 제국과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

실루기아 항구(Seleucia)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단순한 항구 이상의 위상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301년,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Seleucus I Nicator)에 의해 건설된 이 도시의 항구는 헬레니즘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자, 로마 제국의 동방 함대를 수용했던 핵심 해군 기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사도행전 13장 4절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Seleucia)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의 기록처럼 초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뻗어 나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기능하며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시리아의 테트라폴리스(Syrian Tetrapolis)’라 불리는 유기적 도시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안디옥(Antioch)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아파메아(Apamea)는 군사적 요충지 및 전략 기지, 라오디케아(Laodicea)는 주요 상업 항구, 실루기아(Seleucia)는 해상 관문 및 로마 해군 기지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루기아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의 해상 출구 역할을 수행하며, 복음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전략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실루기아 항구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향방을 결정지었던 지리적 및 해양학적 조건을 고고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실루기아 항구 전경

2. 지리적 환경과 해양학적 분석: 바람이 설계한 선교 항로

실루기아의 지리적 위치(북위 36°7', 동경 35°55')는 오론텐스(Orontes)강 하구 북쪽 6km, 고대에는 코리파이온(Coryphaeon)이라 불렸던 현재의 무사 님(Musa Dağ)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안 절벽과 험준한 산지가 배후를 감싸는 천연 요새의 지형은 고대 항해와 군사 전략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고대 항해술에서 자연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선

선교 여정에 결정적인 역학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바람은 페르시아 기압골(Persian Trough)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며, 여름철 오후에 가장 강력하게 불어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구브로(키프러스, Cyprus) 방향으로 항할 때, 에테시안 바람은 순풍 혹은 측면풍의 역할을 수행하여 항해의 안전성과 속도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기상학적 순리를 활용하여 선교의 동력을 얻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구브로에서 실루기아로 돌아오는 길은 강력한 역풍을 거슬러야 하는 고난의 항로였습니다. 이는 실루기아가 ‘들어오기보다 나아가기에 최적화된’ 선교의 발판이자 파송의 항구였음을



교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특히 지중해의 에테시안 바람(Etesian winds, 북서풍)은 바울과 바나바의 첫



페르시아 기압골로 형성된 에테시안 북서풍

증명합니다.

실루기아는 지형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론텐스강이 실어 나르는 막대한 토사로 인해 항구가 매몰되는 '퇴적물 퇴적'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는 소아시아의 에베소(Ephesus) 항구가 카이스터(Cayster)강의 토사로 인해 결국 기능을 상실하고 내륙 도시로 쇠퇴했던 사례와 궤를 같이합니다. 고대 실루기아인들은 이 숙명적인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제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공학적 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3. 도시 구조와 고고학적 유산: 문명의 화려함과 공학적 투쟁

실루기아는 전형적인 헬레니즘 계획 도시로서 기능에 따른 철저한 공간 분리를 보여줍니다. 상부 도시(Upper City)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대에 위치하며 주거 지역, 신전, 귀족 거주지가 밀집되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 방어에 최후 보루였습니다.

하부 도시(Lower City): 내항과 외항을 포함한 항구 시설, 상업 아고라, 창고 등이 위치한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실루기아의 베식리 동굴 무덤: 로마 시대(1~5세기)의 네크로폴리스인 이곳은 약 100여 개의 바위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기둥과 아치 장식은 당시 실루기아 귀족층의 막대한 부와 예술적 수준을 반영하며, 이곳이 고도로 발달한 문화 도시였음을 증명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티투스 터널: 실루기아 항구 매몰을 막기 위해 산을 뚫어 물길을 돌린 로마 제국의 수리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길이 1,380m(개방수로 포함), 높이 7m, 폭 6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터널은 고대 공학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 공정은 제1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AD 47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실루기아에서 출항 이후, 로마 제국은 항구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 군인과 현지 인력과 함께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끌고 온 유대인 포로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터널을 뚫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로마 제국의 힘이 역설적으로 기독교 선교의 관문인 실루기아 항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인간의 파괴적인 정복욕이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를 보존하는 도구로 전략한 역사의 기묘한 반전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티투스 터널

4. 신학적 · 영적 심층 분석: '내려감'의 의미와 영적 전쟁

사도행전 13장 4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went down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지리학과 신학이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안디옥(해발 약 80m 이상)에서 해안가인 실루기아로 향하는 행보는 물리적으로 약 80m 이상의 고도차를 내려가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누가는 이 지리적 사실성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이 '내려감'은 단순히 고도의 하강을 넘어, 안정적인 신앙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를 떠나 거친 이방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는 '성육신적 하강'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상징합니다.

당시 실루기아 항구 남쪽의 카시오스 산(Kasios Mountain) 정상에는 항해의 수호신인 '제우스 카시오스'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Hadrian)와 율리아누스(Julian) 황제가 직접 제사 지낼 정도로 제국 내에서 종교적 위상이 높았던 곳입니다. 사도들의 출항은 단순히 배를 띄우는 행위가 아니라, 제국의 수호신과 선원들의 공포를 자양분 삼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 한복판으로 성령의 권능을 들고 침투하는 영적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로마의 자부심이었던 티투스 터널조차 결국 자연의 섭리(퇴적물 퇴적)를 완전히 막지 못했고, 오늘날 실루기아 항구는 토사에 덮인 늪지대로 변했습니다.

다. 제국의 영광과 인간의 공학적 성취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 한계를 드러냈으나, 바로 그 쇠퇴하는 항구를 통해 전파된 복음은 여전히 살아남아 인류의 영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5. 잊혀진 항구에서 들려오는 영원한 메시지

실루기아 항구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지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제국은 군사적 이익과 도시 보존을 위해 유대인 포로의 노동력을 빌려 터널을 뚫었으나, 하나님은 그 인프라와 지중해의 바람을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을 열방으로 흘려보내셨습니다.

제국의 화려한 건축물과 공학적 자부심은 토사에 묻혀 폐허가 되었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항구의 문턱을 넘었던 사도들의 발걸음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실루기아 항구의 폐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성취는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은 영원하다는 역사의 엄중한 증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

대체신학

이스라엘과 대체신학

Israel and Replacement Theology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전 Chaplain, UNM
Medical Center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 장 : 27 ~ 28
절 *그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니라.*

창세기 32장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생애의 중대 국면을 결정짓는 사건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기적으로 꼽힌다. 재물과 처자를 떠나보낸 뒤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비장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귀중한 신앙체험을 허락하셨는데 그 내용은 한 천사와의 씨름(Wrestling)이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수여에 있다. 즉 집요하고 결사적인 야곱의 영적 갈구에 탄복한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승리와 언약 후계자의 비전(Vision: 환상, 상상)의 뜻을 내 포한 이스라엘이란 명예로운 이름을 내리셨던 것이다. 구약성서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Jeremiah)는 40년간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울러 선포했지만 그들의 완고함, 불신앙, 우상숭배, 메시아 오심을 배척하고 그리하여 민족이 멸망(신명기 4 : 26)하여 2천년 동안 Diaspora 유대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휼과 자비로 언약의 성취대로 이스라엘은 재탄생(1948년 5월 14일)을 했다. 그런데 현재 20세기의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미국의 뉴저지(New Jersey) 주보다 작은 나라인데, 바다, 산과 사막이

동시에 있는 땅인데, 인구는 980만이고, 74%가 유대인이고, 아랍인이 21%이며, 예수를 믿는 Messianic Jew가 2%에 불과하다. 1948년 재 탄생 시에는 거의 70%가 황폐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산에 나무가 50% 이상인 옥토가 되었고 지구상에서 폐수(Waste Water)를 잘 재활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여성도 남자와 같이 군 복무(2년간)를 해야 하고 인공지능(AI) Cyber Energy 첨단과학 분야에선 미국, 유럽 등 세계 선진 국가와 비금 가는 나라이지만 동성애를 허용하고 LGBTQ가 제일 많은 현실이고 현대판 소돔(Sodom)과 같은 텔아비브(Tel Aviv)는 해마다 Queer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참으로 가관이다. 그리고 다운타운에는 노숙자(Homeless), 마약하는 청소년들이 범람하고 그 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하다.

로마제국의 침략으로(AD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지켜 오셨고 그들의 후손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미국에서만 600만 유대인들 중 25만의 크리스천 유대인(Christian Jew)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인 것이다.

대체 신학(Replacement Theology)은 민족적 역사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게 한 사람들로 여긴다. 남은 자(Remnant)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주저한다. 그러나 이방에서 회심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

체 계획(Master plan)이 완성되지 않는다. 유대인 중 남은 자가 돌아와서 꺾인 참 감람나무(True Olive Tree: 이스라엘)가 원줄기에 접붙여야 한다. 그럴 때 예야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하나가 되는 한 새사람(One new man)으로(에베소서 2장 15절)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경륜을 보아야 한다. 대체신학의 베일이 벗겨져서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를 직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를 소원한다. 대체신학을 극복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등 종말에 관한 말씀이 열린다. 민족적 역사적 이스라엘의 존재는 인류 역사의 시간표 역할을 한다(다니엘) 9장, 계시록 7장)

이스라엘의 실패는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열방의 구원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Restoration of Israel)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도에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 되며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살전 4~16절)

뉴멕시코주에서 신경일목사

My dear Korean-American Readers!

〈Continued to Website voice.kumcABQ.com/2026-0304-p19/〉

영문으로 쓰신 글이 웹사이트에서 계속됩니다(편집부) ■

영어이야기 (43)

Mon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필자의 아마추어무선(Ham Radio) 친구 중에 영국의 West Yorkshire 에 사는 James Smith는 매년 달력(Calendar)을 보내는데, 가만히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주일의 끝에 있어, 주말인 토요일/일요일이 영어로 weekend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미국의 영향과 기독교적 전통으로 일요일이 Lord's Day(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week)의 첫째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곱째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휴식을 취한 창세기를 인용하면, 일요일이 제일 뒤에 오는 것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슬람교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일이자 공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요일이 한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서구권과의 상업 거래를 위해 금/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일요일에 출근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UAE(United Arab Emirates)는 Global기준에 맞추어 주말을 아예 금/토요일이 아니라 토/일요일로 옮기기도 합니다.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국제표준(ISO 8601)을 지켜, 월요일을 주의 첫째날로, 주말을 끝에 배치하고있는 국가들입니다. 또한 토/일요일은 흰색보다는 연한 회색이나 베이지(beige)색을 사용하는데, 쉬는날임을 은근히 강조할뿐 아니라, 주중에 메모할 공간을 더 돋보이게하는 기능적 이유도 있습니다. "The ISO 8601

designates Monday as the start of the week to create a consistent for business and daily life." (월요일이 일상생활과 상업활동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을 주의 첫째날로 세계표준을 삼은것입니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국)의 약자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영연방국가들은 Christmas다음날인 12월26일도 Boxing Day로 공휴일입니다. Boxing Day의 유래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설은, 귀족과 부유한 가정에서 Christmas당일에도 하인들이 일했기 때문에, 대신 다음날인 26일 하인들에게 휴가를 주며 음식과 보나스를 담은 상자(box)를 선물로 준것이 유래된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Christmas기간동안 성금상자(Alms Box)를 두고 26일 상자를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Alms(암~즈)는 교회나 사찰같은 종교적인 동기나 자선단체에서 돈이나, 음식, 생활용품등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자선행위(적선행위)를 뜻합니다. 즉 댓가없이 베푸는것을 뜻합니다. 절에 바치는 공양물이나 교회의 성금은 "offering", 일반적인 기부금이나 성금은 "donations or charitable contributions"입니다. 이재민 구호기금은 "Disaster relief fund." 요즘의 영국은 미국의 Black Friday처럼 Boxing Day에 대대적인 할인

을 시작합니다. Calendar는 벽에 거는 달력외에도 "School calendar"라 하면 보통 한장의 큰 종이에 한 학기용으로 만들며, 방학은 언제 시작하며, 학교행사등을 적어놓아 한번에 볼수있게 "List"(목록) 역할을 합니다. 그외에 하루 한장씩 넘기는 desk calendar(a 365-page book), 주로 business man이 일정을 적어놓고 들고다니는 calendar book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13세(Pope Gregory XIII)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Julian calendar를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를 좀더 정확히 맞추고(이때 10월 5일~14일을 삭제하였음), 윤년 횟수 조정을 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개신교국가들은 1년후에 채택하였습니다. 달력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일 년이 12 달이고 한주(week)는 7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달은 대략 28일만에(약 30일) 달모양이 되풀이되며, 12달쯤 지나면 계절이 반복하므로 일년 12달, 한달 30일은 쉽게 납득이 갑니다. 한주가 7일인것은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밤하늘에 보이는 특별한 7개의 천체인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어, 이들 7개 천체를 하루씩 할당하여 일주가 되면서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창조신화 창세기를 보면, 6일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황제(Constantinus, 영어권에선 Constantine)가 서기 312년에 일요일 휴무령을 내리면서, 7일이 한주가 되는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과학적 측면으로 보면 보름달에서 반달로 변화되는 기간이 7.4일, 달의 공전기간이 28일, 그래서 4로 나누면 7일로 7개의 천체이름을 갖다부쳤습니다. Sunday는 Sun, Monday는 Moon, Tuesday는 Mars(화성), Wednesday는 Mercury(수성), Thursday는 Jupiter(목성), Friday는 Venus(금성), 토요일은 Saturn(토성)으로 로마의 신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들 신에 해당하는 북유럽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Tuesday가 Mars(Marsday)가 되지않고 이에 해당하는 Tiw를 사용하여 Tuesday가 된것입니다. 로마의 Mars는 전쟁, 군사적용기의 신으로, 북유럽 민족이 보았을때 그들의 Tyr(Tiw) 신과 같다해서 영어의 Tuesday가 되었습니다. Spanish로는 일요일(Domingo: 주님의 날), 월요일(Lunes: Luna(달)), 화요일은 원래의 화성인 Mars를 뜻하는 Martes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천체의 5행(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을 관측하여 이들 다섯 별들이 본래 만물을 구성하는 5가지 기운을 의미하며, 이 추상적인 기운이 하늘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것이 바로 이들 다섯행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서양이 같은 별(5행성)을 관측하였지만, 우리는 하늘과 인간은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믿음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보며 국가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5행개념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원리에 두었던 셈입니다. 주일이름이, 태양과 달 그리고 5행의 별을 사용

한 행성달력인 서양력이 이조말에 들어왔을때 자연히 주일이름을 일본과 같이 일월화수목금토(日月火水木金土)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日月火水木金土로 된것은 고대 바빌로니아나 그리스 세계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멀리있는 토성을 앞에놓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을 제일 뒤에 놓으면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토성→목성→화성→태양→금성→수성→달 (행성이 일렬로 되어있지도 않고 공전주기가 달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 아니라, 수성이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지구에 가장 가까울때가 많은 별입니다.) 12달을 염두에 두고 낮 12시간, 밤 12시간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면서, 고대 점성술에서 하루 24시간, 각 시간마다 행성이 하나씩 지배한다고 생각하여, 그날 첫번째 시간인 해뜨는 시간을 지배하는 행성이 그날 천체의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토요일인 토성이라 가정하면, 1시간이 지나면 목성, 2시간이 지나면 화성, 이런식으로 계속나가면 24간째는 태양이 됩니다.(달(月) 다음은 토성으로 와서 반복합니다). 태양으로부터 24시간째는 달(月), 즉 월요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해서 日月火水木金土의 순서로 되었습니다. 24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므로, 하루에 3칸씩 뒤로 가는 모양새인데 겹치는것 없이 7일마다 똑같은 행성이 반복됩니다. 즉, 토성 3칸 뒤는 태양(일요일), 태양 3칸 뒤는 달(월요일), 달 3칸 뒤는 화성(화요일), 화성 3칸 뒤는 수성(수요일), 이런식으로 나가면, 다음은 금성(금요일), 토성(토요일)으로 돌아와 반복됩니다. 고대 이집트도 낮과 밤을 각각 12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하루는 24부분(시간)),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의 마디를

세면 12입니다. 12란 숫자가 천문관측에 편리하였을뿐 아니라, 약속(12는 2, 3, 4, 6 으로 나누어짐)가 많습니다. 바빌로니아는 60진법을 사용하였는데, 약속은 2, 3, 4, 6, 10, 12, 15, 20, 30 으로 장터에서 물건을 분배하는데 편리하였습니다. 60진법은 시간, 각도등 천문계산 발전에 도움이 많이되어, 하루 24시간과,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원의 360도의 개념이 수학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예전엔 계절에 따라 시간길이가 달랐지만, 14~16세기에 기계식 시계가 나와 항상 같은 길이의 시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12시진(時辰)으로 1시진이 2시간의 시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분 개념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달력에도 日月火水木金土가 나오는데, 7일째 요일은 아니고, 7요(七曜), 즉 해와 달, 그리고 5행성에서 나온것으로 관상, 역서, 길흉판단에 쓰였습니다. 다만 나중에 서양력이 들어왔을때, 7요가 있었기에 쉽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조시대때 날자는 요일이 아니라,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 열흘, 열하루, 열이틀, ... 스무날, 스무하루, 스무이틀, ... 그믐(말일)으로 불렀으며, 10일을 한단위로 묶어(순(旬)), 초순, 중순, 하순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10일에 한번 쉬었으며, 24절기는 농사에 맞는 계절에 맞추기위해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들었기에 순수 음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사용한 셈입니다. 그리고 9일, 10일은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 지상에 없는날(손 없는날)이라 하여, 9일, 10일, 19일, 20일등을 골라 큰일을 치렀습니다. 요일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100 미터’

차학주

풍성한 교회, 담임목사
Richardson, TX

광고회사에서 잘 나가는 한 중년. 아들과 임신한 아내 이렇게 셋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 댁에 갔는데 그곳서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에서 물건이 슬쩍 빠져나갑니다. 젓가락질을 하는데 음식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소시지 한 조각을 집어 오다 와인 컵에 빠뜨립니다. 가족은 실수 이겠 거니 생각하지만 본인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발성 경화증’ 이 병은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가 중추신경계(뇌, 척수, 시신경)의 수초를 공격해 염증과 흉터를 유발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증상이 호전(완화)되었다가 다시 악화(재발)되는 패턴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온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구글 자료 인용).

육체에서 오는 심한 아픔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인 무너짐입니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재활센터를 찾아 도움도 받고, 일종의 support group에 합류해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절망적인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다가 철인 3종 경기 포스터를 보고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장인의 핀잔과 협박과 갑죽 거림을 통해 차근차근 훈련을 이어갑니다. 절망과 좌절, 극심한 고통과 아픔, 심리적으로 밀려오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가족들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도 ‘홀로’ 라는 감정.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대회 출전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다 갑자기 찾아온 재발. 상태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100 미터’를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해서 결국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 완주합니다. 물론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집으로 다 돌아가고 대회 주최 측도 철수를 준비하는 시간에. 늦어도 너무 늦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해냅니다.

2016년에 나온 스페인 영화 ‘100 미터’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음을 알았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넘어 코믹도 담고 있어 눈물과 웃음으로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한 장로님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벌써 근 20년이 지났으니 이젠 이야기를 슬쩍 꺼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위해 도착한 양로원. 처음 뵙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야위기는 했지만 연로해서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리했듯이 두 손 꼭 잡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성명을 하니 장로님 이라는 겁니다. 숨차 하면서 양로원에 들어오신 이유를 힘들게 설명합니다. ‘루게릭 병’ 얼핏 이 병에 대해서 들은 것 같아 아주 조심스럽게 채유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거동하지도 못하니 예배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예배 전, 혹은 예배 후에라도 꼭 찾아 뵙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혹 주무실 땐 조용히 머리맡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론 살금살금 나오는 머리 뒤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셨습니다.

그러기를 약 한 달. 상황이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 병은 특별히 운동신경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여서 전신 근육이 점차 위축되고 힘이 약해지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합니다. 팔다리 마비, 삼킴 곤란, 발음 장애, 호흡마비가 주요 증상이고 감각은 유지되나 근육이 굳는다고 합니다(구글 자료 인용).

옆에서 지켜보니 이 분에게 가장 힘든 게 몸은 점차 죽어가도 ‘정신은 맑다’는 겁니다. 육체가 점차 굳어져 움직이지 못해도 정신은 말짱해서 모든 생각 판단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니 병의 증세가 확연하게 걸로 드러납니다.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침상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눈동자는 움직여 찾아 뵙 때마다 눈을 마주치려 애쓰십니다.

병이 깊어가니 기도 후 ‘아멘’ 하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목청을 타고 겨우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힘들게.

‘아멘’ 이라는 고백조차 힘겨운 어느 날 힘겹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오지 말라’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 분 마음을 짐작하고 ‘알겠다’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장로님을 찾아 뵙고 기도를 했

< 24페이지로 계속 >

수필

뉴멕시코에서 만난 도시 이름들-- 아비큐와 타오스

김장숙

First Nations
Community HealthSource

치과의사/목사사모



오늘 본 환자 중의 한 사람 프랭크는 내가 알버커키에 와서 현재 일하는 로우 인컴 হাস피털인 FNCH(First Nation Community HealthSource) 치과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다. 그는 내가 새로 시작해서 적응하느라고 힘들었던 시기에 커다란 꽃다발 화병을 나와 나의 어씨스턴트에게 배달해주었다.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는 기간 중에 환자가 감사의 표시로 전해준 꽃을 받은 것은 큰 활력을 주는 굉장한 선물이다. 언젠가 이 프랭크가 아비큐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타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스파놀라라는 도시가 나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가는 길을 따라가면 타오스 지역을 만나게 된다. 반면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비큐라는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 때에는 교회의 한 장로님으로부터 듣게 된 어느 신문 기고가의 글 내용이 크게 마음에 와 닿았던 때이었다. 그래서 아비큐라는 장소가 나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그 분이 직접 신문에서 읽으셨다면 전해주신 내용은 이러했다.

글 쓴이는 뉴멕시코 출신이고, 어린 시절을 Angel Adams의 사진으로 유명한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가 찍힌 지역에서 자랐다. 시골의 랜치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직업도 별로 없고 크게 희망도 없는 고향을 떠나서 삼촌이 사시는 캘리포니아, 엘에이의 파사데나로 옮겨와서 정착하여 45년을 지내고 은퇴를 했다. 어느 날 파사데나의 한 서점에서 우연하게도 사진작가

Angel Adams의 사진 모음집을

들어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의 사진 영상에 눈이 꽂혔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그가 다니던 성당이었고, 햇빛에 반사되는 십자가들이 걸린 묘지 옆에는 그의 할아버지들이 묻힌 곳이며, 사진 영상의 오른 쪽의 집들은 자신의 대부들이 사시던 곳이었다. 그가 살던 고향의 일상적인 풍경이 그 유명한 사진이 되어서 빛과 어둠의 신비한 조화 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은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오랫동안 잊었는데 그의 앞에 유명한 사진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이었다. 그는 또한 유명한 화가 O’Keeffe의 집인 Ranch가 자기 집의 Ranch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 다시 알버커키로 돌아와 살면서 뉴 멕시코의 역사와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글이다. 알버커키에 이사해서 무던히도 내 마음을 움직인 또 다른 도시의 이름은 타오스이다. Angel Adams의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San Francisco de Assis Mission Church가 있는 타오스 도시를 생각해보자.

Mable Dodge Luhan이 아니라면 현재의 타오스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은행가의 딸이었던 그녀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문명을 떠나 자연 속에 자신을 담으려고 이 곳으로 이주 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유명했던 미국과 유럽의 예술가, 사상가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지냄으로써 타오스의 풍경과 침묵, 그리고 원주민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예술이 태어나는 장소가 되었다. Mable Evans Dodge는 Tony Luhan

이라는 타오스 푸에블로 원주민과 결혼을 해서 Mable Dodge Luhan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정이 많은 예술인이 방문하고 정착하는 터전을 만들어 준다. 두 문화가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이 없으면 공존할 수가 없다.

지난 번 타오스에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는 Mable Dodge Luhan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집 안에 들어가보는 투어를 신청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밖에서 보아도 비록 오래되고 낡은 집이지만 정중한 분들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저택임이 분명하였다. 시골 전원 풍경의 한적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훌륭한 저택이다.

내가 방문했던 화가 페친(Fechin)의 집도 서구식 저택이었다. 1920년 30년대에 타오스에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흥황하게 지내던 당시에 그는 그 곳에서 화가로서 살고 있었다. 그의 집과 작업실은 현재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그의 소장 작품과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설 예술작품 전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의 집은 아름다운 섬세한 목조 조각 가구들이 수도 없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도 Mable Dodge Luhan 처럼 돈이 있는 부자였을 것이다.

다른 하나 타오스의 볼거리는 푸에블로 마을이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마을 주민이 잘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다. 흙벽돌로 만든 좁은 공간의 집들을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하여 그 속에서 살기도 하며 기념품과 예술품들을 팔면서 그 생활 공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아비큐와 타오스>

타오스 방문은 댁스기빙 연휴 기간이었다. 미리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휴기간 내내 오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의 장례식이 있다고 클로즈를 하였다, 손님 방문자들이 많은 연휴 기간을 클로즈함으로써 입장료 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를 통한 수익을 포기하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경제 행위보다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한 것이다.

뉴멕시코에서 타오스와 아비큐에 관련된 훌륭한 작품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유한성과 무한한 신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배운다. 아마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작품들보다 더 높고 깊은 경지에 이르는 철학과 예술을 추구한 원주민들이 숨어 있을 지도 모른다. 어쩌면 차마 강이 굽이치고 색색의 붉은 사암 절벽과 파란 하늘만이 보이는 계곡 한 가운데 있는 사막의 영성 Monastery of Christ in the Desert 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인 지도 모른다.

프예블로라는 네이티브 원주민 마을과 그들의 흔적이 많은 땅 뉴멕시코에서 구적인 풍요와 화려함과 테크놀로지가 동반되어 들어와서 아름다움과 예술을 유행시킨 것이 조화인 지 아이로니인 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조합이 새로운 창조물이요 마음을 뚫고 남는 미학임은 분명하다. 타오스와 아비큐를 생각하며 이렇게 예술이란 가진 자에게 주는 특혜인가?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싶었다. 결론은 없는 것 같다. “알고 누리는 자가 갖는 특혜”하고 말해둘까? 이 방면에 많이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요청해본다. ■



Monastery of Christ in the Desert

'100미터'

< 22페이지에서 계속 >

습니다. 기도 끝에 힘들게 마지막 숨을 짜내듯이 역정을 내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구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에 그냥 ‘미안합니다’하고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멍했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힘드셔서 그랬겠지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양로원. 문 열고 발길을 들이자마자 스텝이 조용히 전해 줍니다. ‘그분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도 기도하지 말라고 화낸 후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께 가신 듯합니다.

그 후 한동안 마음에 깊은 아픔이 생겼 습니다.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던 터라 심하진 않았는데 이번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로님이 남기신 ‘기도가 무슨 소용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데’ 이 말씀은 화살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질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머물러서 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가져오는 절망이 아파서 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걸 사람은 후패 하나(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6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but

though our outer person is decaying, yet our inner person is being renewed day by day NASB)

‘걸 사람’은 죽어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약해지고 망가져 가는 육신. 낡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바울도 이 숙명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안으로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적 존재.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새롭고 성숙한 존재로 변화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성숙을 위해 매일 매일 열심히 삽니다.

예수 중반을 넘어가니 육체의 많은 기능이 약해짐을 느낍니다. 특별히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데도 온 몸 여기저기 쭈시고 결리고 아픈 곳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어쩌다 찾아오는 깜박깜박까지. 건강하게 늙어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그도 쉽지 않음을 압니다. 이제 걸 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치열한 연구,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기도, 양로원 분들과 목청 높여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이런 과정들을 통해 더욱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12일 점점 약해지는 몸을 느끼며 차학주 드림) ■

아리랑 마켓+식당
A-Ri-Rang Oriental Market
and Restaurant



Mon - Sat 10:00 am - 6:00 pm
Sunday Closed

(505) 255 - 9634

1826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2

Korean Churches in N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 오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웹사이트:www.galileeabq.com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a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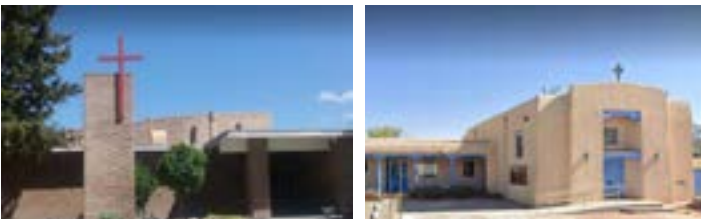
사목회장: 김지수 전례부장: 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 (화, 오전), 성령기도회 (수, 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추석근 목사 (714) 213-9627

주일예배 1부 시간 :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 (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eur
1649 Bridge Blvd. SW
Albuquerque, NM87105
(505) 247-2525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OM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
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에라 차베스 Etta Chavez
Coldwel Banker Legacy
(505-720-2477)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전용배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식당 Restarant

꼬끼오 코리언 치킨
Kokio Korean Fried Chicken
8019 Menaul Blvd Suite A
ABQ(505-308-3179)
Website:kokioabqnm.com

김스마켓
Kim's Oriental Market
(마켓 부속 식당 한식,중식)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아리랑 식당
Arirang Market
(마켓 부속 식당)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 (일식,한식,스시)
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UNM 앞)
ABQ (505)243-8089

아시아판페어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Website:
asianpearabq.com

이찌반 식당
Ichiban Japanese Restau-
rant (한식, 일식)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Website:ichibanabq.com

사쿠라 스시 엔드 그릴
Sakura Sushi and Grill
일식 한식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케이 스타일 키친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사무라이 그릴 엔드 스시바
Samurai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Website:
www.abqsamurai.com

쇼건
Shogun (일식 스시)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Website:
www.shogunabq.com

한미 (한식 중식)
Hanmi Korean Chinese
Fusion
2120 Juan Yabo Blvd. NE
ABQ NM 87112
(505-717-1287)

식품점 Korean Grocery

에이원 한국 식품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아리랑 오리엔탈 마켓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스 오리엔탈 마켓
Kim's Oriental Market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약국

(Compounding Pharmacy)
Pharmacy on the Bosque
(김미정)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505-546-9217
(fax: 505-944-9320)
www.potbrx.com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웹사이트:thegaragenm.com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제임스 박)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화원/원예 Nursery

오수나 너서리 (묘목, 화초)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r-
querque NM 87113
(505-345-6644)
웹사이트:
www.osunanursery.com

회계사 ACC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al Clinic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
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 & 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

로스루나스 Los Lunas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SE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웹사이트:
dentistloslunas.com

로스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 (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NM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r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Lotus Dumpling House
1807 2nd St. #35
Santa Fe
(505-303-3740)
최리엔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쇼건 스테이크 하우스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
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
부
(575)-762-1900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6년 3/4월호 발행일 : 2026.3.1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발행처: 알버커키감리교회 사회 문화부

Korean-American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PHARMACY ON THE BOSQUE
보스케약국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약학박사

COMPOUNDING PHARMACY

10:00 am - 1:30 pm, 2:00 pm - 5:00pm (Mon-Fri)
 전화 : (505) 546-9217

Email: infopotbrx@gmail.com
 Website: <https://www.potbrx.com>
 Facebook: Pharmacy on the Bosque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ETTA CHAVEZ 
애라 차베스 

REALTOR® Associate Broker

Cell: 505-720-2477
 Office: 505-898-2700
 Realty@EttaChavez.com
 EChavez.cblegacy.com
 10300 Cottonwood Park NW
 Albuquerque, NM 87114

 COLDWELL BANKER LEGACY



2026년 봄철 부흥 성회에 초대합니다.
Revival Meeting on March 13(Fri)-15, 2026

2026 봄철 부흥 성회


이제 어디로?

3/13 금저녁: 오후 7:30
 사도행전 16:6-10 "주님의 교회"


3/14 토새벽: 오전 6:00
 누가복음 11:1-4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3/14 저녁: 오후 7:30
 살전 4:3-8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15 주일: 오전 11:00
 요한복음 3:26-30 "조연도 좋습니다"



강사: 조영진 목사
 글로벌 감리교회 감독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505-803-7716, www.kamcabq.com

2026 Spring Revival Meeting


Where to Now

Mar 13 (Fri) Evening: 7:30 pm
 Acts 16:6-10 "The Lord's Church"


Mar 14 (Sat) Dawn: 6:00 am
 Luke 11:1-4 "Lord, Teach Us to Pray"

Mar 14 (Sat) Evening: 7:30 pm
 1 Thess 4:3-8 "This is the Will of God"

Mar 15 (Sun) Service: 11:00 am
 John 3:26-30 "It is Okay to be a Supporting Role"



Speaker: Bishop Young Jin Cho
 Global Methodist Church

 Korean American Methodist Church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505-803-7716, www.kamcabq.com

광고 안내

후면표지는 비즈니스 유료광고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광고를 통하여 뉴멕시코 한인 지역사회를 위해 발행하는 '광야의 소리' 출판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이메일 voiceofnm@gmail.com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